

## 제 목: 2013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 12월 CBSI 3.6p 상승한 64.5 기록

-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일부 입법화, 연말 공공발주 증가 영향 상승, 7개월 내 최고치 기록. 단, 지수 자체는 여전히 저조 -

- 2013년 1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6p 상승한 64.5를 기록함.
  - CBSI는 지난 9월 이후 11월까지 60선 초반 내외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였는데, 12월 들어 수치가 전월비 3.6p 상승하며 60선 중반에 근접함.
  - 이로써 CBSI는 2013년 5월 66.1을 기록한 이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이는 그동안 지연되던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국회 입법화가 12월 들어 일부 이뤄졌고, 연말 공공발주가 증가한 영향 때문으로 판단됨.
  - CBSI가 전월비 3.6p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수준은 전월에 비해 완화되었지만, 지수 자체는 아직 60선 중반에 불과해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계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4년 1월 CBSI 전망치는 12월 실적치 대비 4.7p 하락한 59.8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하락한 것은 1월에는 그만큼 건설경기의 침체수준이 좀 더 악화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1월에는 통상 공공공사 발주 감소를 비롯해 혹한기 공사물량 감소 영향으로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4년 1월에도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CBSI가 전월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했으나, 중견업체 지수는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7.2p 상승한 92.9를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다소 개선되었는데, 지난 8월 92.9를 기록한 이후 4개월만에 다시 90선을 회복함.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비 15.9p 상승해 47.9를 기록하며 12월 CBSI 상승을 주도함. 그러나,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선에 못 미치며 상대적으로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함.
  - 한편, 중견업체 지수는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와 달리 전월비 10.7p 하락한 50.0을 기록하여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더욱 악화됨. 이는 연말 공공발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결과로 판단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조달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8.3, 92.2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양호하게 나타남.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인력 및 자재 수급 상황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5.5, 79.7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78.7, 70.7을 기록해 건설기업이 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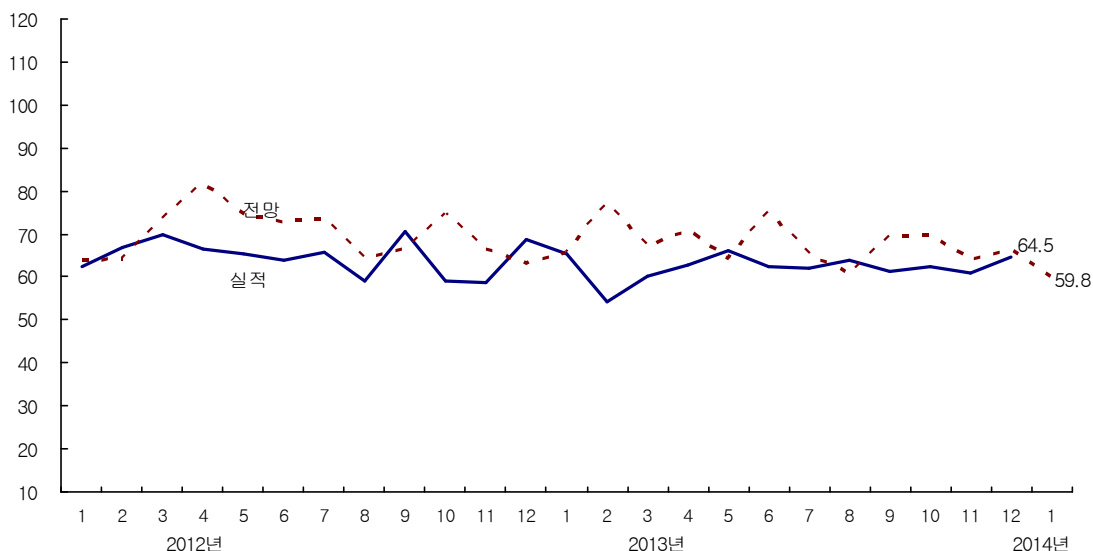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http://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13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2월 CBSI 3.6p 상승한 64.5 기록  
7개월 내 최고치 기록

- 2013년 1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6p 상승한 64.5를 기록함.
- CBSI는 지난 9월 이후 11월까지 60선 초반 내외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였는데, 12월 들어 수치가 전월비 3.6p 상승하며 60선 중반에 근접함.
- 이로써 CBSI는 2013년 5월 66.1을 기록한 이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이는 그동안 지연되던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국회 입법화가 12월 들어 일부 이뤄졌고, 연말 공공발주가 증가한 영향 때문으로 판단됨.
- CBSI가 전월비 3.6p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수준은 전월에 비해 완화되었지만, 지수 자체는 아직 60선 중반에 불과해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계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했으나, 중견업체 지수는 하락함.
-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7.2p 상승한 92.9를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다소 개선되었는데, 지난 8월 92.9를 기록한 이후 4개월만에 다시 90선을 회복함.
-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비 15.9p 상승해 47.9를 기록하며 12월 CBSI 상승을 주도함. 그러나,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선에 못 미치며 상대적으로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함.
- － 한편, 중견업체 지수는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와 달리 전월비 10.7p 하락한 50.0을 기록하여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더욱 악화됨. 이는 연말 공공발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결과로 판단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3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54.3	60.3	62.8	66.1	62.4	62.1	64.0	61.2	62.3	60.9	64.5	66.5	59.8
규모 별	대형	72.7	69.2	71.4	78.6	78.6	85.7	92.9	85.7	84.6	85.7	92.9	85.7	85.7
	중견	48.0	66.7	66.7	66.7	64.3	50.0	48.1	50.0	51.9	60.7	50.0	66.7	50.0
	중소	40.0	42.6	48.1	50.9	41.2	48.1	48.1	45.3	48.1	32.0	47.9	43.8	40.4
지역 별	서울	63.6	64.8	66.9	68.6	71.6	68.7	70.9	73.1	71.2	74.2	73.2	79.8	67.7
	지방	41.8	53.6	58.7	62.2	52.6	51.9	53.3	39.3	49.0	41.1	51.6	46.8	47.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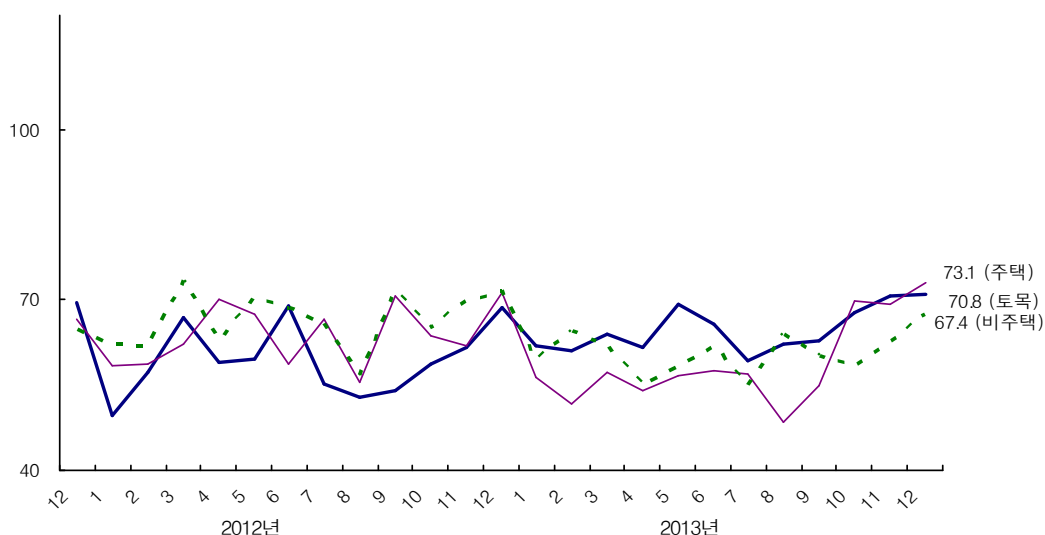
- 한편, 2014년 1월 CBSI 전망치는 12월 실적치 대비 4.7p 하락한 59.8을 기록함.
-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하락한 것은 1월에는 그만큼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좀 더 악화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 1월에는 통상 공공공사 발주 감소를 비롯해 혹한기 공사물량 감소 영향으로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4년 1월에도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CBSI가 전월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 12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업체가 전월 대비 1.0p 감소한 73.2를 기록해 지수가 소폭 악화된 반면, 지방 업체는 전월대비 10.5p 상승한 51.6을 기록해 지수가 개선됨.
  - － 서울업체는 전월 대비 1.0p 감소한 73.2를 기록, 지수가 지난 8월부터 5개월 연속 70선에 머물렀다.
  - － 지방업체는 지난 11월 전월 대비 7.9p 하락한 41.1을 기록해 부진하였음. 12월에는 이에 대한 반등 효과로 전월 대비 10.5p 상승한 51.6을 기록해 지수가 개선됨. 그러나, 지수 자체는 50선 초반에 불과해 여전히 부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한편, 2014년 1월 전망치의 경우 서울업체는 2013년 12월보다 5.5p 감소한 67.7로 60선에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지방업체의 경우 4.2p 하락한 47.4로 40선 중·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 2013년 12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 대비 5.6p 증가한 72.7 기록

- 2013년 12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5.6p 증가한 72.7을 기록함.
  - － 공사 물량 지수는 지난 6~9월까지 4개월 연속 50선의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지난 10월에 물량 침체 상황 소폭 개선 및 지수 수준이 낮는데 따른 반등 효과로 전월 대비 18.6p나 상승한 73.6을 기록함.
  - － 그러나, 11월에는 지수가 전월 대비 6.5p 하락한 67.1을 기록하는 등 상승과 하락을 반복함.
  - － 12월에는 전월 대비 5.6p 증가한 72.7을 기록함. 통상 연말 계절효과로 인해서 지수가 3~5p 수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 지난 2010년부터 매 12월 수치가 70선 초중반을 기록하였는데, 2013년 12월 지수 수준도 최근 3~4년 전 수준과 비슷해 특별히 물량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토목이 다소 횡보세를 보인 가운데, 주택과 비주택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0.2p 상승한 70.8을 기록,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뭇.
  -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3.9p 상승한 73.1을 기록해, 공종별로는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임. 또한, 지난 2011년 10월 74.0을 기록한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 －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4.8p 상승한 67.4를 기록, 지난 2012년 12월 71.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 중견 업체 물량지수가 전월 대비 5.0p 감소했으나, 대형과 중소 업체 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7.1p, 16.0p 상승해 전체 물량지수 상승을 주도함.
-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7.1p 상승한 100.0을 기록함. 공종별로 비주택 물량지수가 85.7로 부진하였으나, 주택과 토목 물량지수가 각각 100을 기록하였음.
  - － 중견업체는 전월보다 5.0p 감소한 59.3을 기록, 지난 10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과 주택이 각각 전월 보다 14.8p, 11.1p 하락해 각각 55.6, 66.7을 기록함. 비주택의 경우 전월보다 2.2p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수가 59.3으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임.
  - － 중소기업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6.0p 상승한 56.0을 기록함. 공종별로 비주택이 전월보다 21.8p 급등한 55.1을 기록함. 토목과 주택 또한 각각 전월 보다, 9.1p, 8.8p 상승한 54.0, 48.8을 기록함.

####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2.7	100.0	59.3	56.0	82.5	57.4
	전망	59.2	76.9	50.0	48.9	65.8	49.0
토목	실적	70.8	100.0	55.6	54.0	80.6	56.2
	전망	61.8	92.9	44.0	45.8	70.9	48.3
주택	실적	73.1	100.0	66.7	48.8	78.4	66.0
	전망	57.1	71.4	44.4	54.8	56.2	58.1
비주택	실적	67.4	85.7	59.3	55.1	68.9	64.7
	전망	59.8	78.6	50.0	48.9	63.5	53.8

주 : 실적은 2013년 1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4년 1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 서울은 전월 대비 4.1p 상승한 82.5를, 지방도 7.2p 상승한 57.4를 각각 기록함.
  -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4.1p 상승한 82.5를 기록함. 지난 10월 89.0을 기록하고 11월에 78.4를 기록한 이후 한달만에 다시 80선을 회복함.
  - －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7.2p 상승한 57.4를 기록함. 7월부터 11월까지 40선 후반에서 50선 초반의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였는데, 12월에는 연말 효과로 50선 후반 대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1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2013년 12월보다 13.5p하락한 59.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 통상 12월에 연말 밀어내기 물량의 영향으로 지수가 상승하고 1월에 물량이 감소해 대략 10p 정도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임.
  - － 2014년 1월 지수가 59.2로 50선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물량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공종별로 주택 물량지수가 57.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낙폭이 가장 크고, 공종 별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다음으로 비주택이 59.8로 두 번째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토목이 61.8로 그나마 60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조달 상황 매우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조달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8.3, 92.2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양호하게 나타남.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인력 및 자재 수급 상황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5.5, 79.7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78.7, 70.7을 기록해 건설기업이 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78.7	100.0	71.4	62.0	87.7	65.3
		전망	79.8	100.0	77.8	58.3	90.3	64.0
	자금조달	실적	70.7	100.0	53.6	56.0	79.5	57.7
		전망	70.5	84.6	66.7	58.3	77.9	59.3
인력	수급	실적	98.3	107.1	107.1	78.0	105.3	88.2
		전망	93.7	100.0	103.7	75.0	103.2	79.5
	인건비	실적	85.5	100.0	92.9	60.0	94.8	71.4
		전망	88.7	100.0	100.0	62.5	97.9	74.8
자재	수급	실적	92.2	107.1	89.3	78.0	100.2	80.5
		전망	91.8	107.1	92.6	72.9	106.3	70.2
	비용	실적	79.7	100.0	82.1	53.1	87.6	67.8
		전망	85.5	107.1	88.9	56.3	96.7	68.6

주 : 실적은 2013년 1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4년 1월 예측지수임.